

국과수, 광주 붕괴클럽 시공 부실 확인

현장 감식...“언제든 사고 나도 안 이상해” 안전요원 1명도 배치 안돼 ‘예고된 인재’

불법건축물 증축으로 붕괴 사고를 낸 광주 상무지구의 클럽 복층 구조물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였다. 감식 결과가 나왔다.

6일 광주클럽안전사고조사본부에 따르면 사고 현장을 현장 감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복층 구조물의 시공 자체가 부실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특히 불법 증축된 복층 부분(77㎡)은 언제든 붕괴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상태였다고 진단했다.

국과수는 복층 부분이 얼마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시공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해당 클럽은 지난 2015년 6-8월 허가받은 복층 구조물 108㎡ 중 45.9㎡를 무단 철거하고 벽면 양쪽으로 11차 형태의 구조물 26.04㎡를 불법 증축했다.

이후 2016년 11월엔 객석과 통로 등을 더 확보하기 위해 불법 증축한 부분에 상판을 덧대 29.56㎡를 추가로 불법 증축했다. 두 차례에 걸친 불법 증축은 모두 무자격 시공업자가 일반 시중 시공 가격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시공한

것이다.

이렇게 불법 증축된 복층 구조물은 천장으로 연결되는 4개 사각 파이프가 지지하고 있었을 뿐 바닥에서 받쳐주는 기둥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는 클럽 메인 공간인 1층을 더욱더 넓게 쓰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언제든 붕괴 위험이 있는 복층 공간이 있었지만 클럽 측은 광주 수영선수권대회 기간 찾아온 외국인 손님들의 경우 모두 복층으로 올려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내국인과 다름이 없고,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복층에 가득 몰려있던 외국인들이 클럽 음악에 맞춰 발을 구르다 구조물 바닥 용접이 떨어져 나가며 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은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붕괴한 부분 29.53㎡에 외국인 30-40여 명이 올라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클럽 측은 또 안전 기준에 따라 최소 6명 이상 안전요원을 뒀아 했지만 단 1명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춤 허용’ 일반음식점으로 지정될 당시 구청에 6명의 안전요원 명단을 제출했지만 모두 퇴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명단을 제출할 당시 실제로 6명의 안전요원이 존재했는지 등도 확인하고 있다.

만약 허위 명단을 제출했다면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춤 허용 업소로 허가해 준 관계 공무원도 처벌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전·현직 클럽 공동대표 5명과 불법 시공업자 1명 등 모두 11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문철현기자

‘클럽 구조물 붕괴’ 서구의회 사과문

“책임 통감...조례 폐지 검토”

광주 서구의회가 6일 치평동 클럽 내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 사과문을 발표하고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서구의회는 이날 제275회 임시회(원포인트)를 열어 “클럽의 변칙적인 운영이 가져온 참사에 진심으로 그 아픔과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입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미진한 부분을 바로잡는 기회로 삼겠다”고 사과했다.

또한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이나 폐지까지 전면 재검토하고, 원

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특위는 서구 보건위생과, 안전총괄과, 건축과와 필요하면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원인규명을 위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을 출석시켜 클럽의 안전에 대한 관리, 지도, 감독 등의 소홀한 부분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특위 구성 인원과 운영 기간 등 구체적인 활동 계획은 오는 9일 열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 12일 임시회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최환준기자

‘경품권 개인정보 장사’ 홍플러스 벌금형 확정

경품행사로 대량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보편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플러스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개인정보를 팔아 챙긴 231억원에 대해서는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플러스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7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홍플러스는 2011년~2014년 10여 차례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천400만여건을 보편사에 231억7천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2015년 2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만 부정하게 취득한 개인정보를 판매해 얻은 대금에 대해 추징을 해달라는 검찰 주장에는 “개인정보는 자연적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 상 물수의 대상이 아니므로 개인정보를 팔아서 얻은 돈도 추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긴급 재난구호품 발송 준비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FRANCISCO)의 북상으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가 재난대응체계에 돌입했다. 6일 오전 적십자사 관계자들이 광주와 전남지역 피해 이재민들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긴급 구호품을 사전 제작·점검, 차량에 옮겨 싣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목포 아파트서 불...에어컨 실외기 화재 추정

1명 경상·150명 대피

목포의 한 아파트에서 에어컨 실외기 화재로 추정되는 불이 나 1명이 경상을 입고, 아파트 주민 15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6일 전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남 오후 11시10분께 목포시 옥암동 한 아파트 15층 집에서 불이 난 것을 주민이 발견하고 119상황실로 신고했다. 불은 집안 채와 가재도구를 모두 태우고 47분 만에 꺼졌다.

불이 난 집의 거주민 1명이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

이 없다. 진화 작업에 나선 소방관 1명은 탈수 증상을 보였으나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이다.

불이 나자 아파트 이웃 150여명이 건물 밖으로 몸을 피했다.

119소방대는 대피하지 못하고 아파트 안에 남은 주민이 있는지 확인하며 불길 이 다른 집으로 번지지 않도록 막았다. 이웃집에 입힌 그늘음을 제외하고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당국은 “에어컨 실외기에서 폭발음이 들렸다”는 목격자 증언 등을 토대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파악 중이다. /목포=강효준기자

한빛원전 인접 농산물 방사능 검사 실시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은 한빛원전과 가까운 광산구 삼거동 일대 농산물에 대해 이달 중순부터 월 1회 방사능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 검사는 최근 영광군 한빛원전 격납건물의 구조적 안전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한빛원전 방사능 누출 등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고, 먹거리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추진된다. 방사능 검사는 방사능 오염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요오드(I)-131,

세슘(Cs)-134, 세슘(Cs)-137 등 3개 항목을 실시하며, 결과는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http://hevi.gwangju.go.kr>)에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014년 방사능물질 검사체계를 구축해 대형마트, 재래시장, 도매시장, 학교급식 등에서 유통되는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등 국내산과 수입산을 대상으로 연간 350여건에 대해 방사능물질 함유 여부를 검사해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최관범기자

제2윤창호법 시행에도 여전한 음주운전 사고

순천 자동차 전용도로서 승용차끼리 충돌...4명 사상

처벌이 강화된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한달이 지났지만 지역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순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승용차끼리 부딪치는 사고로 4명이 숨지거나 크게 다쳤다.

6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55분께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인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울촌산단 방면으

로 달리던 A(27)씨의 SM6 승용차가 이 도로로 진입하려는 B(51)씨의 K9 승용차 운전석 부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를 포함해 함께 타고 있던 친구 2명 등 탑승자 3명이 모두 사망했다. 이들은 친구 사이로 경남 거제로 여행을 갔다 돌아오는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홀로 운전 중이던 A씨는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4%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학생이 음주차량에 치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 지난달 28일 오

전 3시40분께 광주시 북구 풍향동 광주교대 앞 횡단보도에서 C(28)씨가 길을 건너던 대학생 D(20)씨와 E(20)씨를 덮쳤다. 이 사고로 교사의 꿈을 키우던 D씨가 숨졌다. 사고 당시 운전자 C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9%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25일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일명 ‘제2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자에 대해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 기준을 0.1%에서 0.08%로 강화했다. /오승지기자 /순천=남정민기자

‘가는 말이 고와야...’

“...자신에게 비꼬는 말투로 시비를 걸었다며 50대 남성과 70대 여성이 서로 주먹다짐을 벌인 사건이 발생.

“...6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서모(52)씨는 전날 오후 4시30분께 북구 우산동의 한 다방 내에서 정모(72)씨의 멱

살을 잡아 흔드는 등 벽 쪽으로 밀쳐 폭행하고, 정씨는 이에 대항해 서씨의 멱을 잡고 주먹으로 허리부위를 때린 것.

“...경찰 관계자는 “다방에 온 서씨에게 정씨가 ‘또 왔네, 또 왔어’라고 비꼬는 말투로 이야기했던 것이 화근이 됐다”며 “말 한 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의 속담처럼 말 한 마디라도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 /최환준기자

광주의 자랑
최고의 차량과 최상의 서비스
28석 무등, 45인승 80여대 보유
〈관광, 예식, 회사 워크숍, 기업체 통근 차량, 예약상담 문의〉

예향 예향고속관광 YEHYANG TOUR
(유)예향고속관광 (전세버스, 여행사)
홈페이지 : www.yh-bus.com
전화 : 062-944-5775 팩스 : 062-944-5995

기업 채용예정자 모집
<http://www.honam.or.kr>

현재 모집 과정

매일훈련수당 40만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및 훈련사업에 따라 차등지급)

**상담문의 및 접수를 서두르십시오!
카드발급 4주이상 소요!!**

(취업예정자훈련)
훈련비 전액국비 + 자격취득 + 취업알선
냉동공조유지관리

(취업예정자훈련)
훈련비 전액국비 + 자격취득 + 취업알선
양식조리기능사(미론+실기)

취득가능자격증
공조냉동기계기능사, 가스기능사
훈련기간
2019. 09. 25 ~ 2020. 03. 20(6개월)

취득가능자격증
양식조리기능사
훈련기간
2019. 09. 23 ~ 2019. 11. 22(2개월)

※ 훈련과정은 규정에 의해 과정명과 개강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광주공동훈련센터
(재)호남직업전문학교 상담문의 605-8000